

여수세계섬박람회, 섬 관광 지평 연다

30개 국가·3개 국제기구 참가...문화·기술 공유 세계섬도시대회·국제섬포럼 프로그램 구체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30개 국가, 3개 국제기구의 참가를 확정하며 국제행사로서 세계와 연결하는 글로벌 관광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그리스, 필리핀, 페루, 팔라우, 세네갈 등 30개 국가와 WHO, 유니세프 등 3개 국제기구가 여수세계섬박람회 참가를 확정했다.

조직위원회는 그동안 섬과 해양을 주제로 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각국 정부, 국제기구, 주한 외교공관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시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회원으로 가입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협회'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섬 발전, 해양 생태 보전 등 전 지구적 과제를 중심으로 섬박람회의 비전과 차별성을 강조하며 참여 공감대를 넓혀왔다.

또한 국제슬로시티연맹 한국슬로시티본부와 함께 지속가능한 섬의 미래를 보여주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섬의 가치를 세계에 국제적인 공감대를 이끌었다.

이번에 확정된 국가·국제기구들은 박람회 기간 동안 각국의 섬 문화, 정책, 기술 등을 전시·공유하며 국제 교류의 장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단순한 전시행사를 넘어, 섬과 해양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위원회는 해외 관람객 유치를 위해 단계별 글로벌 홍보·마케팅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6월에는 중국 지린성 창춘시에서 관광 설명회를 개최해 중국 동북 3성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해외관람객 유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행사 기간 중 국제 코쿠스 12항차 입학 통해 섬박람회 연계 중국·일본 단체관람객을 유치했으며, 베트남, 중국 등 3개국을 대상으로 여수공항 국제선 부정기편 운항도 추진하는 등 해외 관람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박람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직위원회는 참여 국가들을 대상으로 세부 프로그램 참가신청 접수와 국가별 관리카드 작성, 핫라인 구축을 완료해 다가오는 섬박람회의 국제교류성 운영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전시부스 구성과 국가별 전시 협의, 아일랜드 프렌즈 데이 공연 준비 등도



그리스, 필리핀, 페루, 팔라우, 세네갈 등 30개 국가와 WHO, 유니세프 등 3개 국제기구가 여수세계섬박람회 참가를 확정했다. 사진제공=여수시청

동안 콘텐츠 완성도를 더욱 높여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행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란 주제로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여수 돌산 진모지구 등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순천, 함께 누리는 관광 복지 '행복여행 사업' 참여자 모집

순천시가 평소 여행 기회를 갖기 어려웠던 관광취약계층을 위해 일상 속 특별한 활력을 선물하는 '행복여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29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여행을 떠나기 주저했던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 시민들에게 부담 없이 여행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행 프로그램은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싱그러움 초여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일정으로 운영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여행 코스는 참가자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전남권의 수려한 자연과 풍성한 문화체험을 결합해 알차게 구성했다.

시 관계자는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마주하며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바꾸는 마법 같은 힘이 있다"며 "그동안 여러 여건으로 여행이 어려웠던 시민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아름다운 추억을 가득 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광양, 열섬 완화·탄소 저감 대응 마동생태공원 '바람길숲' 조성

광양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마동생태공원 도시바람길숲' 서측 구간 조성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중동 654-5번지 일원 1185㎡ 면적에 추진됐으며 겹벚나무, 수국, 금목서, 은목서 등 경관수목 2111주를 심어 계절별 특색을 느낄 수 있는 녹지 공간으로 조성됐다.

시는 봄철 빗꽃, 여름철 수국, 가을철 금목서와 은목서의 향기를 통해 시민들이 계절 변화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도심 속 휴식 공간을 구성했다.

시 관계자는 "마동생태공원 도시바람길숲은 도심 녹지축을 강화하고 열섬 현상 완화와 탄소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숲 확충과 녹지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jjjin@



곡성 '청년 마을활동가' 양성...지역공동체 활력 12일까지 접수...만 49세 이하 대상 교육

곡성군이 지역사회와 마을공동체 활동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2026년 청년 마을활동가 신규 양성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청년 마을활동가의 신규 유입을 확대하고,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참가 신청은 오는 12일까지 가능하며, 포스터에 기재된 네이버폼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군민협력과(061-360-2414), 곡성군 행복학습공동체지원센터(061-362-8743)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은 6월 총 5회 과정으로 진행되며, 비밀언덕25 세미나실, 레저문화센터 정보화실에서 운영된다. 참여 대상은 마을공동체 활동과 지역사회 참여에 관심 있는 청년으로,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기준 만 49세 이하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마을공동체의 가치와 철학 이해, 공동체 사업과 지역 의제를 연계한 사업 기획, 공동체 사업 기획 실습, 디지털·AI 도구 활용 방법, 공동체 사업 운영 흐름 이해 등으로 구성됐다.

기본소득, 통합돌봄, 지역순환경제 등 지역 의제의 공동체 사업을 연계하는 특강도 운영해 청년 활동가들이 지역 현안을 이해하고 공동체 사업과 접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청년 마을활동가는 지역공동체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주체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 문제 해결과 공동체 활성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ews1@gwangnam.co.kr

보성, 미력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 속도

2028년 청년문화센터 운영 목표...75억2000만원 투입

보성군이 미력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와 청년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미력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력농공단지는 현재 17개 입주기업과 170여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지역 산업 거점으로, 근로환경 개선과 청년 인력 유입을 위한 정주·복지 기반 확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 친화형 산업 단지 조성과 지역 정착 기반 마련에 나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75억2000여만 원을 투입해 미력면 도거리 일원 농공 단지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청년 근로자 복지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핵심 사업인 청년문화센터는 연면적 1359.9㎡ 규모 지상 2층으로 조성되며, 다목적강당·식당·북카페·체력단련실·기숙사 등을 갖춘 농공단지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청년층의 장기근속 유도를, 지역 정착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산업단지 내 근무환경 개선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도로 및 보도 정비, 스마트 가로등 설치 등을 포함한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군은 이번 사업이 근로·생활환경 개

선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와 기업 투자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군은 2024년 공모사업 선정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업무협약을 완료했으며, 건축기획과 실시설계,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올해 5월 착공에 들어갔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올해 11월 준공, 청년문화센터는 2027년 8월 준공 후 2028년 운영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상철 보성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사업은 시설 확충을 넘어 청년이 일하고 머물고 싶은 산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환 기자 limth66@gwangnam.co.kr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